

현 불 뉴스

# 설왕설래 승가대이전 '결론'

## 김포부지로 최종 확정... 9월까지 공사 착수 정규대승격 운영자금 등 학교예산 현실화

안개속을 걷던 중앙승가대학의 이전설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12월 '중앙승가대학 이전 등 승가교육에 관한 시행사항'이라는 합의문을 통해 정규대승격에 따른 준비와 이전설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혔다.

중앙승가대학 학인 2백여명이 총무원을 항의방문한 후 불교교관 1층에서 무기한 농성 3일만에 도출된 합의문을 통해 중앙승가대학과 총무원측은 김포 금정사부지를 학사이전 부지로 못하고, 9월말 이전에 착공해 계약완료하기로 했다.

또 97년 2월까지의 토목공사 마무리, 98년까지는 수행관 본관 운동장을 완공해 자산화 한다는 등 구체적인 학사이전설사를 명시했다. 따라서 9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김포캠퍼스에서 받게 된다. 또한 학사이전과 동시에 안양동캠퍼스를 대학원으로 설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측은 정규대승격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학교예산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97년도부터는 학교예산을 50% 대폭인상, 15억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총무원측은 등록금을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삭감, 학인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안양동 현 캠퍼스의 도량정비와 개운사 불사를 올해 여름방학동안 마무리 짓고, 정규대 승격에 필요한 교수인력 및 학사와 수석용 법인자산을 확보해 정규대승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구체적인 계획의 도

출에까지 의견을 같이한 총무원은 정규대 승격과 이전에 따른 불사금 확보와 집행에 대해 95년도 분담금 20억원 미수분을 적극적으로 돌려징수키로 하고, 96년도 승가대 이전불사 특별회계 50여원은 수용되는 토지보상금 20%와 관립료 5% 등 가능한 종단의 여력을 모아 연말까지 수급, 집행키로 했다. 이로써 종단혼란의 불씨로 안고 있던 중앙승가대학의 이전설사가 일단락됐다.

(도필선 기자)

## 진천 보탑사 3층목탑 '위용'

### 9월 3년불사 마무리 봉불식 거행

황룡사 9층목탑의 건축양식의 맥을 이은 충북 진천 보탑사 3층목탑이 공사착공 3년여 만에 불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1층에 열두구의 부처님을 모시는 봉불식을 거행했다.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대탑'으로 이름지어진 보탑사 3층목탑은 연건평 1백52평, 높이 108척(32.7m)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보탑사는 이후 요사채 중각 지정전 선방과 청소년수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수 송환 등을 주장해 정치적 인색함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북한서도 초파일 봉축

북한에서도 지난 5월24일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금강산 표훈사, 묘향산 보현사, 대성산 광범사, 평양 용화사 등의 사찰에서 봉행된 이번 법회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도·시·군위원회의 교직자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보현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찬불가 합창으로 시작되었으며, 박태호 조불련위원장은 법어를 통해 "불교도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염원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통일조국과 지상정토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의 봉축법요식에서도 연방제 통일안, 비전향 장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현재 어린이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는 여름캠프는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파라미타, 불교레크리에이션교교회, 우리는선우등 20여개에 달한다. 이들 캠프는 2박3일 내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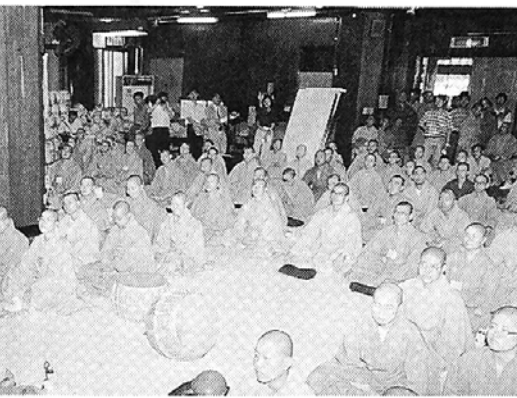
'열우! 신명나는 우리문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국악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는 민요, 탈춤, 단소, 풍물 등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자연속에서 공동체생활을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자연을 벗삼아 창작활동을 북돋아주는 창작캠프, 팻목타기 수영 등의 호연지기를 키울수

주 관 단 체	캠프명	장 소	일 정	연 락 처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96 청소년 문화캠프	속리산	7/26~29	(02)735-8165
파라미타	2540 연합캠프	덕유산	8/6~9	(02)720-7060~4
우리는선우	청소년국악캠프	여주	8/1~4	(02)278-8672
불교레크리에이션교교회	연꽃어린이캠프	청령	7/23~25	(02)738-7860
목동청소년회관	창작캠프	제주도	7/16~20	(02)646-6815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역사유적캠프	경주	7/22~24	(03)973-6168
김종종합사회복지관	통려어린이캠프	가곡 자연휴양림	7/31~8/2	(02)985-0161
진주불교회관	여름캠프	지리산 대원사	7/26~28	(059)747-0108
명동종합사회복지관	여름캠프	춘천	7/31~8/1	(037)762-813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캠프	미정	7/29~31	(0392)31-8761

## 속초사회복지관 7일 '파랑새 창작발표회'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 후)은 지난 7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제2회 파랑새 창작발표회'를 개최했다.

'바른 휴식에서도 눈을 뜨는 씨앗처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1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명의



○총무원과 중앙승가대학이 지난 12월 '중앙승가대학 이전 등 승가교육에 관한 시행사항'을 합의함에 따라 김포로의 학사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사진은 중앙승가대학 학인 2백여명이 조계종 총무원 불교교관 1층에서 합의 농성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 청소년 불교여름캠프 '다채'

## 청교련·파라미타등 20곳 현장학습 위주 준비

있는 극기캠프, 자연탐구학습관 농업박물관을 견학하는 현장견학캠프 등은 청소년들에게 호평받는 프로그램중의 하나다.

파라미타(총재 성태)는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덕유산 아영장에서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맑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파라미타 여름캠프는 법의의식 연습을 시작으로 사찰순례, 생태조사, 환경보존활동, 민속활동(울놀이, 활쏘기, 널뛰기, 투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경내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사람의 경관을 훼손하고 수행자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삼가했었던 것이 전통이게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다.

부도전, 쌍계사 일주문부근의 삼나무와 편백 등 일제때 식재한 나무들을 조사해 전통사찰경관복원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자

## "사찰경내 나무 인심는 전통 있었다"

### 조계종 직할사업주지연수서 이경재교수 이색강연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지난 12일부터 3일간 화성 신봉사에서 개최한 직할사업주지연수회에서 서울시립대 이경재교수(환경생태화학)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정책과 불교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화엄사 일주문과 선운사 일제때 日수종 삼나무·편백 등 무질서 식목 연생태계와 건축물이 만나는 공간을 생태계에서 추이대(推移帶)라고 하며 추이대에는 많은 생물이 모여들어 수행하는 스님들을 고통에 빠뜨릴수 있다"며 "전통사찰에서는 이런 추이대에 불두화같이 향기가

사람의 경관을 간파하고 사찰내부에 일본 전통수종인 삼나무, 편백, 금송 등을 무질서하게 만들었고 해방후에도 사찰경내에 기념식수가 성행했다"고 지적했다. (엽)

## 교구별 정책사업 예산편성

### 조계종 내년부터

조계종은 내년부터 교구예산을 따로 편성해 교구별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등 교구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1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교구부사 기획·재무국장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에 따른 실무작업을 설명했다.

이날 기획실장 현웅섭은 기조발표를 통해 "지난 94년 종단개혁당시 총무원과 교구가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교구예산제도를 마련했으나 종단 여건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

## 법륜스님 환경공로 서울시장 표창받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법륜스님은 지난 5일 제24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조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 우리민족돕기운동 21일 창립

### 종교계·시민대표 대북식량지원기구 구성

종교·시민·학계 단체를 중심으로하는 대북 식량지원운동 기구가 21일 발족된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서영훈(전 KBS사장) 손봉호(경실련공동)대표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대표들은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1일 창립에 앞서 1천3백명의 회원을 모집하며 회원들이 매월 수입의 0.3%를 은행계좌에 자동납부하는 방식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해 금년내로 50억원의 대북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마음 눈 밝아지는 공부

무조건 읽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던대 땀이 나출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필연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눈감고 떠르려는 애기는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어서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부는 장년공부가 아니라 눈 밝아지는 공부입니다. (한자윤선)

### 협찬 한마음선원 발행제회

**btn** 캠페인 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보면 부처님이 됩니다

#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시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조초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케이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강남케이텔TV(강남구) 1518-3000, 강동케이텔TV(강동구) 14747-115, 강서케이텔TV(강서구) 3663-1414, 구로케이텔TV(구로구) 830-8300, 강서케이텔TV(강서구) 877-5000, 노원케이텔TV(노원구) 934-3366, 동대문케이텔TV(동대문구) 215-0114, 동부케이텔TV(동부구) 433-2121, 동서케이텔TV(동서구) 498-6000, 동북케이텔TV(동북구) 824-8080, 미포케이텔TV(미포구) 717-1125, 미래케이텔TV(미래구) 899-5555, 북부케이텔TV(북부구) 942-0001
- 부산지역: 부산케이텔TV(부산구) 365-0101, 시포케이텔TV(시포구) 525-8852, 동진케이텔TV(동진구) 318-2700, 우정케이텔TV(우정구) 418-3000, 문정케이텔TV(문정구) 388-8000, 중앙케이텔TV(중앙구) 753-6781-3, 한양케이텔TV(한양구) 634-3200, 천안케이텔TV(천안구) 645-2222, 부산케이텔TV(부산구) 640-6585
- 대구지역: 대구케이텔TV(대구구) 953-4000, 동구케이텔TV(동구구) 985-7777, 대구케이텔TV(대구구) 656-5555, 서구케이텔TV(서구구) 567-6000, 우성케이텔TV(우성구) 769-8888, 주촌케이텔TV(주촌구) 55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텔TV(남동구) 422-4757-9
- 광주지역: 광주케이텔TV(광주구) 512-4433, 광주케이텔TV(광주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텔TV(대전구) 673-3322, 한양케이텔TV(한양구) 222-8350-1
- 기타지역: 수원케이텔TV(수원구) 257-4011-3, (주)광명케이텔TV(광명구) 242-2131-2